

선배들의 취·창업 개척 사례

“전 국민의 ‘문화 생활화’를 꿈꿨어요” - 전아름(써니사이드업 대표)

Q. 컬처워크를 하는 문화마케팅 회사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는 갤러리가 많은데, 이상하게도 선뜻 들어 가게 되지는 않잖아요. ‘미술전공자와 함께 갤러리를 돌아 다니며 작품설명을 들으면 어려운 내용도 이해되고 여행 하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90분 동안 갤러리 세 곳을 둘러보는 갤러리 투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현재는 아트, 골목길 투어 등도 하고 있어요.

Q. 어떻게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대학에 입학한 후 공모전, 서포터즈, 마케터즈, 블로그 기자단, 봉사활동 등 스무 개가 넘는 활동을 하면서 제게 전문적인 기술이나 뚜렷한 재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두루두루 알고 그것들을 융합할 줄 아는 제 성향이 창업에는 잘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Q. 창업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무엇보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보다 ‘전 국민의 문화 생활화’라는

비전부터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내가 먼저 행복해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행복의 기준이 돈을 많이 버는 거라면 ‘많은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 등 자신에 대해 정확히 판단 하는 것이 필요해요.

Q. 학창 시절에는 어땠나요?

저는 어려서부터 돈이 들지 않는 문화생활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무료 전시회나 연극 공연을 많이 봤고, 서점에 가서 책도 많이 봤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Q.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세요.

저는 꿈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꿈이 없다고 조금 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가능한 한 많은 경험을 하고 책을 많이 읽어야 해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 교육시스템 안에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죠.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창의적 커리어패스 사례집 - 창작 분야)

또래끼리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게 일치 하지 않아요. 하지만 언니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게 같잖아요. 그건 정말 복이에요. 제 생각에는 수입이 어떤 자신의 꿈을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최고의 화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수입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천*주(중학생)



순수미술화가를 꿈꾸는 고2입니다. 그런데 돈도 많이 벌고, 인정도 받고 싶어 고민입니다. 꿈과 현실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고3인데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후회막심인 게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현실과 꿈 사이에서 갈등만 하다 시간을 흘려보낸 거예요. ‘진작 하고 싶은 꿈에 몰두할걸’, ‘내가 망설인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도저도 아닌 꼴이 되어 버렸어’라는 후회가 수시로 든답니다. 물론 현실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꿈을 선택하지 않으면 정작 결정의 순간이 다가올 때, 후회만 남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네요.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윤*은(고등학생)

현실과 꿈 사이에서 고민이 많으시네요. 님의 질문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듯해요.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고, 현실에 따라 충실히 순수미술화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님이 현실에 대해 너무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김*영(중학생)

※ 「또래끼리」는 커리어넷에서 운영하는 또래상담 ‘친구야~ 도와줘!’의 내용을 월 1회 연재하는 코너입니다. 「또래끼리」를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확인해보고 자녀와 함께 대화를 나눠주세요.

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 하는데, 이 고민은 평생 끌어안고 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끝낼 수 있는 고민이 아닌 거지요. 인생은 수많은 갈림길에서 선택의 연속이라고 생각해요. 언제든 또 다른 갈림길이 나올 테고, 지금 뭔가를 선택한 다고 해서 평생 그 선택대로 가는 것도 아니니 좀 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고민해보세요.

전*선(고등학생)

(출처: 커리어넷(www.career.go.kr) > 진로상담 사례)

「홍보 분야」 관련 직업 및 학과를 소개합니다

[직업 살펴보기 : 홍보(PR)전문가]

▼ 직업 개요

- 홍보(PR : Public Relations)는 기업·단체 또는 관공서 등의 조직체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생각이나 계획·활동·업적 등을 널리 알리는 것이며, 홍보전문가는 이러한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해 관련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조언하는 사람입니다.

▼ 직무 내용

- 홍보전문가의 경우, 고객사의 홍보를 전담합니다. 홍보의 목적·대상·전개 방법·비용 등이 담긴 홍보 기획서를 작성해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합니다. 고객사나 신규 제품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모아서 신문과 잡지 등 언론매체에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고객사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기사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이외에 기업을 대중이나 소비자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홍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실행하는 일도 수행합니다.

▼ 관련 흥미 및 적성

- 소비자와 기업, 언론과 기업의 소통을 담당하는 직업의 특성상 대인친화력, 조리 있게 말하는 능력, 그리고 작문 실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창의력과 사회 트렌드를 읽는 안목도 중요합니다. 출신 학과는 다양하지만 광고홍보학, 신문방송학, 경영학, 어문 계열 등의 전공자가 많은 편입니다.

[학과 살펴보기 : 홍보광고학과]

▼ 학과 특성

- 홍보와 광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커뮤니케이션 교육 및 연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합니다.
- 이론과 실무를 함께 강조하고 관련 긴밀한 업계와의 연계를 추구하여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제고합니다.

▼ 주요 교육 내용

- RP원론 : 현대 PR의 원리와 실제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 탐구
- 위기관리론 : 기업이나 기관에 악영향을 주는 다양한 위기 상황을 사례를 통해 진단하고, 위기의 사전적·사후적 극복을 위한 쟁점 모니터링 및 분석, 전략적 의사결정과 집행 등
- 매체관계 : 언론기자나 방송제작자 등 미디어 종사자와의 호혜적 관계 구축 및 대중매체를 통해 공중에게 노출되는 기업이나 개인의 이미지 관리
- PR세미나 : PR 이론이나 실무와 관련된 중요 이슈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시도하고, 팀 과제를 통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 졸업 후 진출 분야

- 기업, 정부, 마케팅, 광고,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서
- 국내외 홍보대행사 및 광고대행사, 기업체 홍보실, 리서치회사
- 인터넷, 웹서비스 기획 관련 각종 벤처기업 등


(출처: S여자대학교 홍보광고학과)



진로소식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 오디오 팟캐스트 방송이 시작됐어요!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자녀의 진로, 진학 정보와 유명 전문가 및 직업인과의 인터뷰를 오디오로 제공하는 진로 레시피가 4월부터 시작됩니다.

방송기간	- 04월 13일 ~ 12월 31일 - 매주 월, 수, 금(주 3회)
방송내용	- 4월 13일, 15일, 18일 방송 - 출연자 : 박재원 소장(아름다운 배움) - 박재원 소장의 착한 진로/진학 설명회
청취방법	- PC : 팟빵 웹사이트 → '진로레시피' 검색 - 스마트폰 : 팟빵 앱 → '진로레시피' 검색 - 앞에 속 진로 앱 → '진로레시피' 검색 - e-진로채널 앱 → '진로레시피' 검색
QR코드	 팟빵 앱 다운로드 ※ QR코드를 통해 팟빵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들려주는 직업별 꿀팁! 진로솔루션

이달의 주제와 관련된 여러분의 진로고민을 남겨주세요. 진로·진학(학습)·직업 등 각 분야의 커리어솔로문들이 종합 진로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대상	초·중·고등학생
3월의 주제	알파고를 움직이는 사람들 '컴퓨터프로그래머' * 매월 초, 새로운 상담주제 게시
이용 방법	① 커리어넷의 진로솔루션 접속 pc: '커리어넷(http://career.go.kr/)' 접속 → '커리어넷 진로상담' → '진로솔루션' 모바일:  ② 상담주제 확인 및 관련 진로고민 등록 ③ '진로솔루션' → '전문가 답변 확인하기'에서 솔루션 페이지 열람 * 로그인 없이 참여 가능